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12(금) ~ 2024.4.18(목)

제공일시 2023 04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4.12(금) ~ 2024.4.18(목)

제공일시 2024 04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배출권 거래제 개방하나... 탄소가격 '브뤼셀 효과' 조짐

-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한 전 EU 집행위원회(집행위) 관리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가 제3국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협력을 강화하면 탄소 가격 '브뤼셀 효과'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함. 이에 EU가 실제로 시장을 개방할지 주목됨
-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전 집행위 고위 관리이자 현 유럽대학연구소 교수인 요스 델베케가 "일부 국가의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시장을 상호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한스경제 2024.4.17\) 신연수 기자](#)

2. 미국 무역·제조업 탄소감축 TF 수립, "국제 파트너들과 탈탄소 협력 확대"

- 미국이 국제 무역과 제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섬
- 1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는 콜롬비아 대학 방문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국제 무역과 제조업 탄소 감축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다고 발표함
- 이번 태스크포스의 주 역할은 미국의 기후 및 무역 정책의 이행을 위한 탄소 감축 데이터 공개를 보장하고, 높은 감축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비즈니스포스트 2024.4.17\) 손영호 기자](#)

3. EU, 태양광 제조 지원 위해 '태양광 헌장' 발표

- EU가 태양광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태양광 헌장을 15일(현지시간) 발표함
- 비공식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카드리 심슨을 대표로 하는 EU 에너지 위원회, 23개 EU 회원국의 에너지 장관, 산업 대표들이 서명함
- 이 헌장은 EU 태양광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질 일련의 자발적 행동들을 제시함
- 이를 통해 EU 태양광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높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약속함

[\(시타위스 2024.4.16\) 김태윤 기자](#)

4. 'XBRL' 공시 분류법, ESG 산업 재편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한 뒤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을 마련함
- IFRS재단은 최근 회의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공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기술 문서임

[\(한국경제 2024.4.15\) 이승균 기자](#)

5. EU,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무배출 요구하는 규정 채택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배출 제로 목표를 포함해, EU 전역의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 및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ESG투데이가 12일(현지시각) 전함
- 또, 2040년까지 건물 난방 시스템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됨
- 이번 채택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내용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임

[\(임팩트는 2024.4.16\) 홍명표 기자](#)

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지정 검토… 엉터리 보고서 막는다

- 정부가 거짓·부실 보고서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대폭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함
- 올해 진행되는 제도 개선 포럼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선정하는 방안 등 대행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이 오는 19일 열림
- 환경부는 올해 11월까지 매달 포럼을 통해 사업자와 2종 업체 간의 대행 관계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뉴스핌 2024.4.15) 알가희 기자

2. 민간 공동주택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친환경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됨.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달성 여부 판단기준을 현 설계기준보다 16.7% 상향된 100kwh/m²·yr을 적용함
-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함

(노컷뉴스 2024.4.11) 장관순 기자

3. 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놓음
-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

(조세금융신문 2024.4.15) 김영기 기자

4. 기후변화 심각성에… 환경부, ‘기후적응법’ 제정 추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함
- 기후적응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달 26일 처음 개최했고, 간담회에는 기후적응센터, 환경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함
- 기후적응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피해 최소화 활동, 건강피해와 자연재해 회복력, 과수 생태계 변화 대응, 한파쉼터 등을 포괄함
- 기후적응법이 새로 제정되면 탄축법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 탄축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함

(서울경제 2024.4.11) 박신원 기자

5. 금융위, 이달 중 지배구조TF 출범… 감사에 방점

- 정부가 이달 중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심사 방안을 본격 논의함
- 정부는 감사인 지정 면제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수혜 대상을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정함
- TF는 상장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논의하게 되는데, 평가 핵심 요소는 감사 기능의 우수성이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2024.4.12) 홍재영 기자

1. BHP, 리오 틴토, 호주 최초 전기 제련로 공동 시험… 탄소 배출 80% 감축 목표

-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업체인 BHP 그룹과 리오 틴토 그룹은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이는 신기술을 시험하고 있음
- 전기 제련로를 대상으로 한 이 기술은 호주 최초로 시도되며, 표준 용광로와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 오염 강도를 80%까지 줄일 수 있음
-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입증될 경우 전 세계 제철소에서 사용 가능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4.16) 김진영 기자

2. 日 라피더스, 美 실리콘밸리에 자회사 설립… 고객 확보 나서

- 일본 라피더스(Rapidus)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영업 거점 역할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함
- 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함. 이 지역은 미국 엔비디아와 인텔이 본사를 둔 곳이자,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사업 거점으로 여기는 곳임
- 라피더스는 여러 업체와의 경쟁에 대응하고자 소량 주문도 맡아 빠르게 제조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이데일리 2024.4.13) 박순엽 기자

(매일경제 2024.4.13) 최승진 기자

3. ‘베트남 대표 기업’ 빈그룹·FPT, 녹색 전환 위해 손잡아

- 베트남의 대표적인 두 기업인 빈그룹(Vingroup)과 FPT 그룹이 녹색 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함
- 이번 MOU에 따르면, 빈그룹, FPT 그룹 및 회원기업들은 잠재적 신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해 녹색 및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회에 큰 이익과 가치를 가져온다는 계획임
- 특히, 빈그룹은 그룹 및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FPT의 핵심적인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FPT가 빈그룹 회원사 직원들을 고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아주경제 2024.4.15) 전형준 기자

4. 아프리카 최대 규모 독립형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이 설치된다

-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독립형 배터리에너지 저장시스템(BESS)이 향후 2년 이내에 설치될 예정임
- 아프리카 독립 전력 생산업체인 글로벌렉(Globeleq)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노던 케이프에 있는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프리카 초대형 독립형 BESS 시스템을 완공할 예정임
- 글로벌렉은 작년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노르웨이 기업 마그노라로부터 레드샌드 프로젝트를 인수했으며,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4.4.11) 김환이 기자

5. CO2를 시멘트 소재로 바꾸는 호주 스타트업, MCI 카본

- 최근 호주에서 철강, 시멘트, 비료, 광업 등의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 새로운 제품과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MCI 카본(MCi Carbon)이 그 주인공임
- 이들은 포집된 CO2를 제강슬래그, 광산 폐기물, 원료 채석재와 같은 광물 폐기물과 혼합해 고체로 된 탄산염 또는 규산염을 만들어 내는 접근법을 제시함
- 이는 화학 물질, 시멘트, 콘크리트 및 가정용 소비 제품 등 새로운 저탄소 건설 및 건축 자재의 직접 투입물로 사용됨
- 공정은 저온, 저압이며 1만년의 저장 기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임팩트온 2024.4.17) 유미지 기자

1.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 역대 3번째 규모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삼성전자는 이에 맞춰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약 450억달러(약 62조3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것임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11조8000억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임

(연합뉴스 2024.4.15) 김경희 기자

2. SK E&S ‘베트남 팜찌성 최대 LNG 프로젝트’ 제안

- SK E&S가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본격 착수함. 태양광과 풍력 중심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현지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조준함
- 16일 팜찌성에 따르면, 성 기획투자부는 SK E&S가 현지 대기업 ‘T&T그룹’과 합작해 추진하는 팜찌성 LNG 발전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절차를 승인함
- 양사는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토대로 인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 작업을 개시함

(더구루 2024.4.16) 정예린 기자

3. 효성, 2026년 ‘베트남 스판덱스 공장’ 첫 가동

- 효성이 베트남 바리아-붕따우(BR-VT)에 스판덱스 생산 체인을 완성해 세계 최대 스판덱스 원단 공급업체로 도약할 계획임
- 이는 효성이 베트남 현지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완전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의미함
- 효성은 베트남 내에서 사탕수수과 옥수수를 이용해 BDO(부탄다이올) 바이오섬유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공장에서 고탄성 스판덱스 원단으로 가공함
- 이 과정은 전적으로 베트남에서 이뤄지며, 효성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섬유 시장에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4.16) 홍정화 기자

4. 고려아연, 호주 풍력발전소 6737億 취득…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고려아연은 내달 3일 자회사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통해 스페인 신재생에너지기업 악시오나(Acciona)가 호주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지분 30%를 취득한다고 밝힘
- 취득 금액은 총 7억5300만호주달러(한화 약 6737억원)로, 오는 2025년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임
- 고려아연 측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전소 지분을 인수했다”며 “취득 금액 및 일정은 양사 합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함

(베로타임즈 2024.4.12) 김세윤 기자

5. 세아윈드 ‘훗 부두공사 완료’ 풍력 사업 가속

- 영국 티스강 하구에 구축 중인 자유무역항의 대형 리프트 부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현지에 모노파일 공장을 건설 중인 한국 기업 세아윈드의 해상 풍력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세아윈드는 이번에 완공된 사우스 뱅크 부두 시설을 통해, 현지에서 생산한 모노파일을 글로벌 해상 풍력발전 시장 1위 기업 덴마크 오스테드 등에 직접 보낼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4.11) 최용석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4.12(금) ~ 2024.4.18(목)

제공일시 2024 04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의회, 전력시장 및 가스시장 개혁 법안패키지 통과

(임팩트는 2024.4.18) 송선우 기자

- 지난 12일 유럽 의회는 가스 및 전력 시장 개혁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채택함
- 해당 패키지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함. 법안은 크게 △공정한 가격 책정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부터의 가스 수입 제한 도입 △고탄소산업 대상 친환경 수소 전환 지원으로 구성됨
-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EU 내 독립적 에너지 생태계 조성임
- 이를 위해 EU는 친환경 수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임.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지역의 수소 생태계 전환을 우선시할 예정이며, 기존 화력발전소를 바이오가스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기반 친환경 연료 생산거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특히, EU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꼽고 있음. EU 집행위는 유럽 내에서 2030년까지 350억 입방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EU 의회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또, EU는 제철, 화학산업 등 친환경 전환이 비교적 어려운 고탄소산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수소 기반 파일럿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약화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됨. 회원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LNG 터미널 또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는 가스의 양을 제한할 수 있음
-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됨
- 기존의 전력시장 설계에 따르면, 소비자 전력요금은 가스발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이 때문에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돼 전력요금이 저렴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은 비싼 전력요금을 납부해야 함
- 이에 이번 개혁안은 소비자가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고정전력요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또, 전력공급자가 전력요금이 높은 시기에 요금지불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전력공급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마련함
- 특히, 유럽 또는 국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은 중소기업과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전력요금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또, 화석연료 발전소의 정부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해 2028년까지 석탄 및 가스 발전소가 친환경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전력생산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FIT) 제도를 개편함. 해당 제도 하에서 정부는 전력공급자와 양방향 계약을 맺고, 전력가격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전력공급사의 최저도매가격을 보장함